

열린신문

2026 vol. 375

AUGUST 8월호

 말씀 마주보기

상급을 거절하고 상급을 얻다

창세기 14장은 아브람(훗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정착한 소돔이 국제 전쟁에 휘말린 사건을 기록합니다. 성경이 이 사건에 한 장 전체를 할애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롯과 아브람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엮힌 일은 곧 하나님의 관심사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람은 집에서 훈련한 318명의 병사를 이끌고 추격하여 승리하고, 사람들과 재물을 모두 되찾아 돌아옵니다. 그 승리 후, 아브람 앞에는 대조적인 두 왕이 나타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로 아브람을 환대하며 이 승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합니다. 반면, 소돔 왕은 아브람의 승리를 정치적 기회로 이용하려 하며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전쟁의 관례상, 자발적으로 군대를 이끌고 나가 승리한 아브람은 그 전리품을 가질 정당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 전리품은 다섯 나라에 속한 사람들과 막대한 재물로서, 당시 한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정치적·군사적 기반이 되는 자원이었기에 어찌면 이때가 아브람의 인생에 있어서 일국의 왕이 될 전무후무한 기회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소돔 왕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며 선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여기서 ‘손을 든다’라는 표현은 고대 근동의 계약 체결 방식으로, 아브람이 이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신앙 선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실 한 오라기, 신발 끈 하나라도 취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소돔 왕이 제안한 보상을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성공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세상 앞에 증명한 것입니다. 눈앞의 확실한 성공(전리품)을 거절하고,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어지는 15장은 “이 후에”라는 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소개합니다. 세상의 상급을 포기한 아브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친히 아브람의 보호자가 되실 뿐 아니라, 아브람이 거절한 그 어떤 재물보다 더 큰 ‘상급 그 자체’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본문은 분명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성도는 복을 쫓아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더디고 좁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때 언약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합당하고 필요한 복을 때에 맞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 발행인 김성진 편집인 진광희 편집부 열린교회사무국 편집주간 이성도 최선미 취재팀 김환 신미숙 이숙영 최희주 디자인 디자인집 (02)521-1474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39번길 31 전화 1661-4375 팩스 (031)421-9411 이메일 yullin@yullin.org 홈페이지 www.yullin.org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는 1993년 12월 12일 방배2동의 작은 지하실에서 설립되어 1998년 방배동 예배당을 거쳐 2002년 4월 평촌 현 예배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열린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삶의 감동이 있는 성도”라는 신앙의 목표를 실천하며, “회복된 성도가 가정을 살린다/회복된 가정이 교회를 살린다/회복된 교회가 세상을 살린다”는 목회 비전을 품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열린신문>은 총 8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열린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열린교회는 본 신문을 매개로 외부성경공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발견하신 분은 1661-4375로 제보 바랍니다.

📖 본문과 오늘

고난을 풀어주라, 백성을 번성하게 하라



김성진 담임목사

본문의 배경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이 분열의 원인은 솔로몬의 몰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정략결혼을 통해 나라를 안정시키려 했지만, 수많은 이방 여인과 함께 들어온 우상숭배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꿈꾸던 제국은 그의 죽음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솔로몬 이후 남유다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은 그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나라의 분열은 심판이자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두 왕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분열한 나라 속에서도 회복과 번성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두 왕의 이름

두 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름 속에 사명과 뜻을 담아 두시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은 히브리어 ‘라하브’와 ‘암’이 결합한 말입니다. ‘라하브’는 고난과 압박에서 벗어나 넓어지고 여유롭게 된다는 뜻이고, ‘암’은 백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르호보암은 “백성을 넓게 하다”, “백성을 번성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니며, 백성들의 고난을 덜어 주고 여유롭게 하는 사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오랜 세월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과 부역을 지우며 큰 부담을 안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시며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지운 짐을 덜어 주고,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이름은 히브리어 ‘야라브’와 ‘암’이 결합한 말입니다. ‘야라브’는 많아지다, 번성하다라는 뜻이며, 따라서 여로보암은 “백성을 번성하게 하는 자”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를 맡기시며, 분열 속에서도 백성을 번성하게 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르호보암과 남유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도 르호보암을 통해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말기 백성들은 무거운 세금과 부역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여로보암과 북쪽 열 지파의 대표들이 찾아와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르호보암이 자신의 이름에 담긴 사명을 감당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먼저 원로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왕이 먼저 백성을 섬기면 백성이 영원히 왕을 섬길 것입니다”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는 성경이 가르치는 통치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조언도 들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더 강하게 통치하라고 권했습니다. “내 아버지보다 더 무겁게 너희를 다스리겠다”라고 선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두 의견 중에서 백성을 섬기는 길보다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북쪽 열 지파는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떠나갔고,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에게 나라의 분열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고난을 풀어주라 하시며
르호보암을 세우시고
백성을 번성케 하라 하시며
여로보암을 부르셨다.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의 길을 여신 하나님

그러나 두 왕은
사명보다 자리를 택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다.
고난을 풀고 공동체를 세우라고 ”

흥미로운 점은, 성경이 르호보암의 실패 원인을 정치적 판단의 미숙함이나 경험 부족, 성격적 결함에서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모든 문제의 뿌리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은 데 있다고 진단합니다 (대하 12:14).

여기서 ‘굳게 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음을 단단히 세우다, 확고히 정하다, 방향을 결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르호보암은 여러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지만, 정작 하나님께 묻는 장면은 없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결정 앞에서도 그는 사람들의 의견을 비교하고 계산할 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통치 아래 남유다는 우상숭배와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삼 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 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왕상 12:12~20)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와 폭정에 대한 심판으로 나라를 나누기로 하셨습니다. 이미 솔로몬의 말년에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왕상 11:30~31).

만일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따르지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견고한 왕조를 세워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왕상 11:37~38). 하나님은 분열된 북이스라엘이 오히려 새로운 번성의 기회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보다 자신의 왕권을 붙들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를 본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로 돌아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벤엘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예루살렘 대신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절기까지 변경하며 새로운 종교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죄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숭배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성경은 북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을 군사력의 약함이나 외교 실패에서 찾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멸망했다고 해석합니다(왕하 17장).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보내어 돌이키라고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맙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멸망 이후의 모습입니다. 앗수르는 정복한 민족들을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켜 서로 섞여 살게 하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는 여러 민족과 혼혈되면서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후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주해 온 여러 민족이 섞이면서 사마리아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독립된 이스라엘 공동체로 존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백성을 번성하게 하라”라는 사명을 맡기셨지만, 그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고, 결국 번성해야 할 열 지파는 역사 속에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맺음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시고 저마다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맡기십니다. 중요한 것은 사명의 크기가 아니라, 그 사명보다 자신의 유익과 체면, 두려움을 앞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며 맡기신 일을 붙드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사람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붙들어, 우리를 통해 지친 이들이 위로와 쉼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

여름성경학교(미취학부) 후기

아이들과 함께 누린 하나님 나라



김자영 유치부 교사
vivo315@naver.com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유치부 교사로서 맞이한 아홉 번째 여름성경학교였다. 여러 번 경험했지만, 올해도 여전히 설레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의 주제는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였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이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생각에 거룩한 부담감이 들었다.

유치부 교사들은 2주 전부터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하루에 세 번 릴레이 금식기도를 드린다. 많은 선생님이 한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내가 먼저 큰 은혜를 받은 했다. 올해는 유난히 더 신나는 찬양과 함께 예배가 시작되었다.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인형극을 보려고 목을 길게 빼고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올해는 유치부 학부모님께서 직접 아이들의 점심 도시락을 준비해 주셨다. 아이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던지, 9

년 동안의 여름성경학교 중 가장 음식을 남기지 않고 잘 먹었던 것 같다. 귀한 섬김 덕분에 아이들의 소중한 여름성경학교가 더욱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었다. 설교 말씀과 공과 시간의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한 OX 퀴즈 시간에도 아이들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문제를 맞히고 기뻐하는 모습, 아쉬워하는 모습, 스티커 하나에도 마냥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나 역시 함께 행복했다.

코스워크의 모든 활동을 아이들이 즐거워했지만, 특히 ‘온몸 충성 활동’이 기억에 남는다. 군대 훈련소를 연상시키는 다양한 활동이 이어졌는데도 아이들은 진지한 모습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여했다. 마지막에 군인 모자를 쓰고 힘차게 “충성!”을 외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군사로 건강하게 자라가기를 기도하게 되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전도사님과 임원 선생님들께서 세심하게 준비해 주셔서 더욱 든든했다. 또한 청년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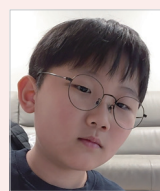
유치부 학부모님, 장년 성도님들까지 많은 스태프 선생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적으로 섬겨 주신 덕분에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다.

유치부를 오래 섬기다 보니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큰 기쁨이다. 특히 이번 여름성경학교에서 우리 반 7세 친구들은 지난해보다 예배에 훨씬 더 집중했고, 코스워크에서는 서로를 챙겨주는 모습까지 보여 주어 참 기특하고 대견했다.

여름성경학교가 정말 즐거웠다는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분의 도움과 섬김에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덕분에 여름성경학교를 마친 후에도 예년처럼 지치기보다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더 크게 남았다. 여름성경학교는 단순히 하나의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앞으로도 말씀과 사랑으로 꾸준히 돕고 함께 걸어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

여름성경학교(취학부) 후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선택하다



소년부 정아준

여름성경학교에서 기억나는 말씀을 애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정말 순종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분이 아니라고 우리 죄 때문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강하게 부정했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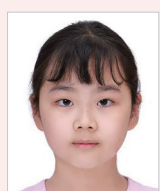
②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은 영생을 위해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오 예수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목상하고 사랑하는 등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그것은 제가 모두 어렸을 때부터 해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하지만 부자 청년은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우선시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해도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③ 레크리에이션 활동: 저는 므나를 모으는 활동이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초반에는 물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기억에 남았고 므나를 받았을 때 좋았습니다.

④ 율동: 교회에서 율동을 아주 신나게 춘 것도 기억나고 ‘예수의 길, 자유해’라는 찬양의 가사가 되게 좋았습니다.

⑤ 기도하는 시간: 기도를 하면서 들을 때 정말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항상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 세상의 차가운 시선 속에도 다른 우상을 믿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믿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될 수 있기에 항상 예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와 행동, 생각을 꼭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울이라는 제 친구가 금요일에 왔는데 여름성경학교를 하면서 정말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전도하고 사랑하며 복 받는 삶을 사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도 했습니다.

⑥ 깨달은 점: 앞에 말했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부끄러워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우상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여름성경학교 이 활동이 우리가 기뻐하는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초등부 최유은

이번 성경학교에서는 예배, 찬양, 공과, 물놀이, 공동체 활동 등 여러 시간을 가졌지만, 저는 설교 말씀과 기도가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전도사님이 설교와 기도를 너무 잘해 주셔서 귀에 쏙쏙 잘 들어왔고,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특별히 제가 경험한 여름성경학교 중 제일 좋았습니다. 일단 본관 예배실이 크고 깨끗하고 시원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놀이와 물놀이 등 활동이 다양하여 매우 즐거웠고, 점심 식사 뷔페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다같이 열심히 우리 팀을 응원하고, 너무 열심히 뛰면서는 탓에 땀을 흘리는 친구들도 종종 보였습니다.

특히 저는 이번 여름성경학교에서 초등부 찬양팀을 하였는데 몇 주 동안 여러 번 연습을 하고 무대에 오르니 너무 행복하고 보람찼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공과 1과에 나온 니고데모, 2과에 나온 부자 청년처럼 마음 속에 예수님 대신 돈과 같은 우상을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다같이 한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마치 정말 초등부 모든 친구가 한 가족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공과 3과에서는 열 명의 종 중에서 3번째 종이 주인님이 준 한 므나를 그냥 놔두었는데, 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주신 한 므나를 10배로, 100배로 풍성하게 열매 맺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

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초등부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 교회에 감사합니다. ☆



유년부 신지은

안녕하세요. 저는 유년부 2학년 신지은입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기억에 남는 말씀은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

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때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이 말씀에서 “다시 태어나라”가 기억에 남고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 질문하는 장면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나는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기로 진짜 진짜 굳게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놀이 할 때 비가 안 오게 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사실 물놀이장 물이 너무 차가웠지만, 너무 재미있고 즐겁게 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밥이 너무 맛있어서 두 그릇이나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맛있고 맛난 음식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또 유년부 이하림 선생님께 찬양을 배우고 즐기며 잘해주신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는 기도가 어릴 때는 싫었는데 이제는 기도가 좋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말을 하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게 힘들지만, 기도를 하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발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나를 인도하시며 안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여름성경학교가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면 좋겠습니다. ☆

반천교회 아웃리치 후기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고진실 장년2교구
jsmclassic@naver.com



저는 가족(남편, 8세·6세 자녀)과 함께 강원도 정선 반천교회 아웃리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준비 모임에서 그림 전도지를 활용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이미 전도에 익숙하신 집사님들께서 시연하시는 모습을 보며 참 대단하다는 생각과 함께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도와 전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분주한 일상에서 시간을 내어 연습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도 연습을 충분히 하지 못한 채 아웃리치에 참여하게 되었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조는 집사님 한 분, 청년 한 분, 제 딸과 저를 포함해 모두 네 명이었습니다. 특히 집사님께서는 아웃리치 경험이 풍부하셔서 팀을 지혜롭게 이끌어 주셨고, 복음을 전하는 좋은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처음 참여한 저는 집사님을 따라다니며 전도하는 방법을 직접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정을 방문했지만 특별히 두 어르신이 기억에 남습니다. 첫 번째 어르신은 3년 전 어머니께서 소천하신 후 유품으로 성경책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는 않으시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도 선뜻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매일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풍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가까이 계신 것 같으면서도 아직 분명히 만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접 기도를 권했지만 거절하셨습니다. 자아가 강해 보이셔서 더 권면하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대신 전도대원들이 수고하는 모습에 고마운 마음이 든다며 초청잔치에는 참석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정말로 잔치에 오셨습니다.

예배 중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싶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절대 안 하실 것 같았던 그 어르신께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영접 기도도 따라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참 감사했습니다. 어르신의 표정에서 진심과 뜨거움이 느껴졌습니다. 그 마음에 심긴 복음의 씨앗이 앞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자라나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94세의 어르신입니다. 이 어르신께는 제가 직접 영접 기도를 인도해 드렸습니다. 제게는 매우 특별하고 새로운 경험이었습니 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연습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참석한 저를 통해 영접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도 사용하시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이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 어르신을 만났을 때는 준비한 전도자료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잠시 당황했습니다. 순간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급한 마음에 AI의 도움을 받아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고 기도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어설피고 부족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준비 모임 때 시연해 주신 집사님들의 손색없고 완벽해 보이는 전도만이 복음이 전해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전에서 경험해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방법이 완벽하든 어설피든 복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전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였습니다. 그저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초청잔치에도 이 어르신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저는 어르신 곁에 앉아 내내 손을 잡아 드렸습니다. 제 손을 피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함께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찬양과 율동으로 잔치가 즐겁게 진행되는 동안 저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어르신 94세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분 남은 삶 동안 하나님 꼭 만나주세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정말 절박하고 간절하게 마음 깊은 곳에서 기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앞으로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

덕천교회 아웃리치 후기

내 강아지, 내일 봐

7년 만에 아웃리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모님을 따라간 이후, 이번에는 20살이 되어 제 선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늘 병원 전도를 다녀오신 뒤 기쁨으로 간증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도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신청하고 나니 ‘내가 과연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제 입술에 지혜를 주셔서 제가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도 경험하게 해 주세요.”

저는 이번에 미용팀으로 염색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할머니는 시크하신 80대 후반 할머니였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염색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할머니를 뵈고 너무 놀랐습니다. 비슷한 연령대, 구부정한 허리, 예쁜 미소까지 어릴 때 돌아가신 할머니와 너무 닮으셨습니다. 놀람을 감추고 염색해 드리며 말동무를 해드렸습니다. 계속 질문을 해도 계속 단답으로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트키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너무 예쁘세요.” 이 한마디에 할머니는 저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역시 예쁘다는 칭찬은 모두에게 기분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이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저의 할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닮아서 외할머니 생각이 난다, 할머니가 제 외할머니 같으시다, 이 얘기 또 한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세상 시크하시던 할머니는 어



김란 청년부
krnvision@naver.com



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따뜻하고 다정한 할머니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서 교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적하실 때 교회 오셔서 할머니들이랑 어울려 말동무도 하시고, 맛있는 밥도 드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할머니를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교회에 오실 수 있게 해주시고 저를 만나게 해주신 것 같다 등등 교회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실 수 있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다음날 제가 연극을 하는데 꼭 보러 와주시면 좋겠다, 어릴 적 할머니가 무대 보러 오시는 게 소원이었다, 할머니가 무대를 보러 오시면 힘이 날 것 같다고 말씀드리며, 오셔서 연극도 보시고 맛있는 밥도 드시는 건 어떤지 여쭙았습니다. 할머니는 바로 저의 등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당연히 오겠다 해주셨습니다. 염색약을 다 바르고 기다리시는 동안 미용팀 같이하는 집사님이 할머니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이후 할머니는 테이핑과 마사지도 받으시며 마주치는 모든 분께 “내 손녀딸 삼을라고, 내가 지 할머니 닮았대야”라고 저를 자랑하며 다니셨습니다. 집에 돌아가실 때는 저의 손을 꼭 잡으시고 “아가 내일 봐”라는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지팡이를 짚으시며 구부정한 허리로 걸어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다음날 어두운 옷을 입고 있던 전날과는 달리 옷장에서 가장 아끼시고 예쁜 화사한 옷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발견하시자마자 “내 강아지 잘 잤어? 잠

자리는 안 불편했?”라며 제 엉덩이를 두들겨 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안아드리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맨 앞줄에 앉으셔서 처음부터 마지막 순서까지 열심히 참여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집에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밥은 먹었는지, 연극 중간에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다치진 않았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제 걱정만 하시다가 가셨습니다.

아웃리치에서 돌아온 지금도 할머니의 뒷모습이 생각이 나서 기도합니다. 할머니께서 들으셨던 복음이 할머니의 마음 안에 심기고, 덕천교회에서 지속해서 예배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어머니께 자랑하기 위해서 신청했던 아웃리치였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셨던 시간이었습니다. 전도라는 것이 무섭게만 느껴지고, 당연히 전도 못 할 것 같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초청잔치에 오시는 것을 보며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상상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값진 경험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며 깨달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아웃리치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어머니와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

금산영광교회 아웃리치 후기

구원을 기다리는 목소리

 나의 아웃리치는 2008년경 평촌으로 이사 온 뒤 가족을 따라 처음 참여한 것이 시작이었다. 당시에는 아웃리치가 무엇인지도 잘 모른 채 따라갔고, 복음 제시 시간에는 주변인을 경계하고 차단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 천국초청잔치에서 공연한 연극에서는 '마귀' 역을 맡아 나름 충실히 역할을 감당했다.

그 이후 아웃리치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몇 년 전 지방 발령을 마치고 목양팀에 들어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말씀을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전도와 선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깨닫게 되었다.

마침, 지난해 교구가 바뀌었고, 한 집사님의 권면도 있어 용기를 내어 금산영광교회 근거리 아웃리치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나는 전도대원으로서 처음으로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있었다. 나름 자신 있는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 제시를 마친 뒤에야 그분이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조금 민망하기도 했지만,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마음으로 자리를 떠났다. 그것이 초보 전도대원이었던 나의 첫 아웃리치 기억이다.

그런데 올해 초, 나를 아껴 주시던 둘째 고모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조금씩 차도가 있다는 이야기에 언젠가는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만 했을 뿐, 차일피일 미

루었던 것이 너무나 후회되었다.

그러던 중 교구에서 금산영광교회 아웃리치 전도대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문득 그곳의 연로한 어르신들이 떠올랐다. 결국 다시 지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이 두 번째 아웃리치인 만큼 더 철저히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먼저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시고, 그 마음이 잘 전해지게 해 달라고 틈나는 대로 기도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을 거니시며 아담과 하와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내 일상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다. 그리고 복음을 내가 이해한 언어로 다시 정리한 뒤 출퇴근길마다 반복해서 말해 보며, 어떤 상황이라도 바로 대응할 수 있게 훈련하였다.

드디어 출발하는 날, 지난해 만났던 어르신들의 이름과 얼굴을 떠올리며 금산으로 향했다. 어떤 분은 제가 보자마자 알아보고 “○○○ 어머니”라고 부르자, 깜짝 놀라 시기도 하셨다. 덕분에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감사했다.

특히 세 분은 지난해보다 훨씬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느껴졌고, 두 분에게는 중보기도까지 해 드릴 수 있어 감사했다.

이를 보며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일하고 계셨음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또 한 분은 첫째 날 교회로 가는 길에 만난, 처음 뵈는 할머니였다. 얼굴은 무척 메달라 있었고,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기 어려웠다. 아웃리치 기간 동안 다시 뵈기 어려울 것 같아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러자 할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구원을 받고 싶지만 나는 글을 모른다”고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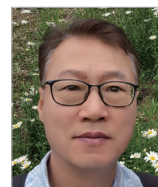
나는 일단 다음 날 초청잔치에 꼭 오시라고 안내해 드렸다. 하지만 내 마음에는 할머니의 그 작은 목소리가 단순히 글을 모른다는 말로 들리지 않았다. 마치 하나님께 “제발 나를 구원해 달라. 나를 살려 달라”고 간절히 부르는 외침처럼 들렸다.

이번 아웃리치 기간 동안 가장 안타까웠던 일도 있었다. 지난해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셨던 이장님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또한 한 할머니는 발에 나간 아들 내외의 식사를 챙겨야 한다며 초청잔치에 참석하지 못하셨다. 그 모습을 보며 영혼 구원의 시급함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마음 한편이 오래도록 무겁고 아프게 남았다.

준비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어 기뻐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돌아왔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들의 아픈 다리와 들리지 않는 귀, 보이지 않는 눈뿐 아니라 삶을 엮매고 있는 모든 것을 풀어 주시고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한다. ☆



김성호 장년6교구
baull77@gmail.com



구상교회 아웃리치 후기

초심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아웃리치를 주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라는 마음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이번 아웃리치는 저에게 일곱 번째 아웃리치였습니다. 매년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아웃리치를 준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아웃리치의 권태기가 찾아온 것일까요. 작년 아웃리치를 마친 후, 예전처럼 큰 은혜를 느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웃리치를 다녀왔음에도 마음 한편에는 공허함이 남아 있었고, 점점 열정도 식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2026년 아웃리치는 잠시 쉬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웃리치에 가지 않겠다고 한 지 일주일쯤 지난 토요일 저녁, 우연히 본 한 선교사님의 쇼츠 영상이 제 마음을 다시 움직였습니다. “지금 힘드신가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짧은 말씀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고, 다시 아웃리치에 참여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를 아웃리치 현장으로 부르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2026년 아웃리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보답하고, 받은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며 준비했습니다.

특히 준비 과정에서 찬양 섬김을 맡으며 매일 찬양을 연습하고 가사를 묵상하는 시간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 곁에서 힘과 위로를 주신다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시간은 단순한 연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아웃리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감, 그리고 설렘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으로 첫 번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마주한 반응은 예상대로 차가웠습니다. 잠시 들어가도 되겠냐는 질문에 단호하게 “안 됩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정을 방문했지만 대부분 거절의 의사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는 듯했는데, 마지막으로 방문한 집에서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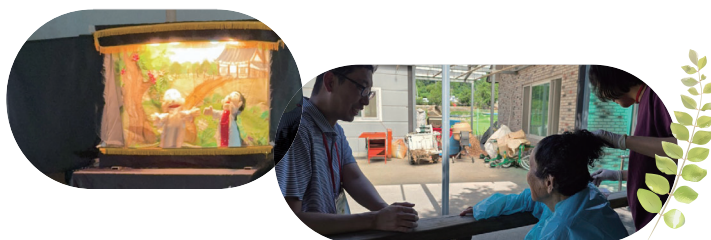
그 집에는 83세의 어르신께서 홀로 계셨습니다.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았고, 본인은 불교를 믿고 계셔서 교회에는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방문한 자매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번에도 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매님의 권유로 어르신을 위해 기도해 드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기도를 부탁받은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먼저 “하나님, 이분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제 입술을 통해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짧게 기도한 뒤 어르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그때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희를 집 안으로 받아 주신 어르신의 열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

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 주시고, 어르신께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그 집을 나서면서도 그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질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 생각 끝에 저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아웃리치는 권태기에 빠져 있던 제 마음이 다시 초심을 되찾는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태신자로 참여했던 첫 아웃리치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후 매년 아웃리치에 참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을 이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제 마음은 어느새 무뎌지고 굳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제 모습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처음 아웃리치에 참여했을 때의 설렘과 감격을 다시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 모든 것을 내게 맡겨라”라는 듯한 위로와 격려를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이번 아웃리치는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해 준 시간이었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함을 배우게 해 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초심을 잃어버릴 것 같은 때마다 이번 아웃리치를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처음 제게 주셨던 마음을 기억하고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지희진 청년부
4581438@naver.com



사랑부캠프 후기

사랑부가 가르쳐 준 두 가지



김현겸 청년부
Kotranster03@naver.com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초부터 사랑부를 섬기고 있는 청년입니다. 이번 여름 캠프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글을 씁니다. 제가 느낀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찬양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 때에 다윗이 베 에봇을 입었더라”(삼하 6:14). 본문은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순전한 찬양의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이가 아닌 오직 ‘주님 앞에서’ 추는 춤, ‘주님께만’ 드리는 찬송은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감격하게 합니다. 찬양의 본질이 무엇인지 간결하게 알려주는 본문이지요. 저는 이번 사랑부 캠프에서 수많은 ‘다윗의 춤’을 보았습니다. 사랑부 지체들은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뛰놀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에서도 거리낌이 없었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할 때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정박자와 엿박자가 한데 섞여 혼란스러운 박수였지만, 음정과 가사가 때때로 많이 어긋났지만, 하나님께서 듣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아니었을까

까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그들과 함께 찬양하며, 나 자신의 찬양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에 용기를 내어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으로 불러볼 수 있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빌 2:4). 비록 짧은 섬김이었지만, 그간 사랑부에 있으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부서의 특성이 교회의 본질에 잇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부에서는 선생님 한 분이 한 명의 지체를 말합니다. 선생님들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십수 년을 그들과 함께 지내며 삶을 함께합니다. 매주 지체뿐 아니라 지체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파악하고, 기쁜 일에는 축하를, 슬픈 일에는 위로와 해결책을 건넵니다. 그야말로 가족처럼 지내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이번 캠프에서 더 강해졌습니다. 캠프에 가서 하룻밤을 지내보니 제가 맡은 지체뿐 아니라 다른 지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마다 다른 개성을 가진 지체들을, 선생님들께서 각각에 걸맞은 방식으로 섬기고 계셨습니다. 지체가 선생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볼 수 있

었고, 선생님이 지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득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여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약간은 알 것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여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깊은 관계 맺기를 꺼립니다. 일주일에 한번 만나 대화하고, 가볍게 응원하고, 서둘러 ‘현실’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족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라면, 그 이상을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이번 캠프를 통해, 저는 사랑부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말로 그들을 통해 찬양하는 법을 배우고, 교회가 무엇인지 배웁니다. 바라기로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최대한 누리고, 그럼으로써 서로 꾸밈없이 사랑하며 주님의 평화를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장학위원회 기고

믿음의 유산을 잇는 장학헌금



최용호 장학팀장
yonggri@hanmail.net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9:8).”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나는 지금까지 많은 섬김을 해왔다. 그동안 가장 힘든 섬김이 주차봉사라고 늘 생각해왔지만, 장학팀장을 맡으면서 그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다. 장학위원회의 일은 지원서를 받아 심사하고 장학생을 선발하는 것이지만, 그 과정은 절대 단순하지 않았다. 오히려 생전 처음 눈물로 감당한 섬김이었다.

상반기에는 71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신청했고, 그 가운데 22명만 선발할 수 있었다. 지원자들의 사연과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갈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다. 선발된 학생보다 선발되지 못한 49명의 학생이 더 오래 마음에 남았다. 장학팀장으로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장학생을 뽑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를 기다리게 해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감이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게 한 가지를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은 머물러 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물이다. 그 선물은 필요한 곳으로 흘러갈 때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 광야에서 만나를 하루치만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장학헌금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단순히 학비를 지원하는 헌금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이어주는 귀한 사역이다. 오늘 우리의 작은 헌신은 한 학생에게는 용기가 되고, 교회에는 소망이 되며, 훗날에는 또 다른 세

대를 세우는 씨앗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심사를 통해 깨달은 것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장학금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자신을 기억하고 응원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담임목사님께서도 학생 시절 교회의 장학금과 도움으로 학업을 이어 가셨다고 한다. 그 은혜를 받은 목사님께서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 다시 흘러보내고 계신다. 믿음의 유산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 이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계속된다. 은혜는 내 안에 머무를 때보다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때 더욱 아름답게 빛난다.

앞으로도 있을 장학헌금 주간에 더 많은 성도님께서 이 귀한 사역에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한다.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다음 세대를 세우고, 믿음의 유산을 이어 가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기를 기도한다. ☆

추천도서

복음전도란 무엇인가

제임스 패커(저) · 조계광(역)/생명의말씀사

복음전도, 인간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복음전도의 성공은 회심을 이끌어냈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지 않다.” 일평생 무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단 한사람의 회심자도 얻지 못한 선교사들이 있다. 과연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본서에서 저자는 복음전도의 결과가 사람들의 바람이나 의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고 설명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은 결코 복음전도를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그 같은 신앙이 없을 때 복음전도는 지속적인 생명력을 잃고 힘을 상실한다고 경고한다. 일시적인 좌절과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고 끈기 있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필요한 원동력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밖에 없다고 저자는 힘주어 강조한다.(출판사 리뷰)

주요사역

- 7일(금)~28일(금) 한여름밤의 특별금요기도회(4주)
- 10일(월)~12일(수) 교역자 가족수련회
- 12일(수) 원거리 아웃리치 파송식
- 14일(금)~17일(월) 원거리 아웃리치
- 16일(주일)~17일(월) 2040 수련회
- 20일(목) 구역과 목회와의 만남(학회)
- 22일(토) 온세대 아침예배
- 22일(토)~9월 12일(토) 등대학교(4주)
- 29일(토) 구역장 수련회
- 30일(주일), 9월 6일(주일) 장학헌금
- 30일(주일)~9월 20일(주일) 하반기 결혼예비학교(4주)/ 등불학교(4주)

새가족

장년

- 심현섭(84)
- 이윤재(92)
- 박종원(65)
- 이 선(67)
- 정주아(75)
- 김용복(74)
- 송기정(86)
- 이현애(91)
- 유시미(78)
- 안신영(92)
- 박동환(61)
- 배은혜(63)

- 김찬술(95)
- 황대국(89)
- 강화신(95)
- 나하영(87)
- 김태승(88)
- 김동일(84)
- 배인철(91)
- 김시은(93)
- 윤정호(70)
- 한윤희(70)
- 김순자(42)
- 신지연(82)

청년

- 진현정(02)
- 김세린(07)
- 정영민(01)
- 한휘수(99)
- 김세현(01)
- 김윤정(97)
- 최의진(93)
- 임희성(93)
- 이영건(94)
- 신경철(85)
- 김현석(88)

안양교도소 대집회 후기

광야를 지나며



장경숙 교정전도팀 팀장
69djaak424@naver.com



저는 2014년, 당시 교정전도팀 팀장으로 섬기시던 권사님의 권유로 교정서신 사역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그 사역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정서신만 섬길 때는 교정전도팀 전체 사역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4년 동안 팀장으로 섬기시던 권사님께서 사역을 내려놓으시면서 제가 팀장을 맡게 되었고, 그때부터 교정전도팀의 다양한 사역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께서 궁금해하시는 교정전도팀 사역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자매결연 모임: 격월 첫째 월요일 안양교도소를 방문하여 13~18명의 형제와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역입니다.(저희는 교도소에서 만나는 수용자분들을 ‘담 안의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 봉사자 모임: 격월 첫째 월요일 안양교도소를 방문하여 성가대원들에게 찬양을 지도하는 모임입니다.
- 대집회: 연 2회 안양교도소를 방문하여 약 150명의 형제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 얼음물 후원: 무더운 여름, 냉방시설이 부족한 안양교도소 형제들을 위해 얼음물을 후원합니다.
- 영치금 후원: 교정서신 사역과 자매결연 모임에 참여하는 형제들에게 영치금을 지원합니다.

교정전도 사역 가운데 하나인 대집회는 올해 두 차례 모두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대집회가 열린 7월 14일, 폭폭 찌는 무더위 속에서 형제들이 요청한 피자빵과 바나나 180인분을 스타리아에 신고 안양교도소로 향했습니다. 마침 지나가시던 담임목사님께서 간식을 옮기는 일을 함께 도와주셨고, 임직 교육을 받고 계신 예비 권사님 네 분과 반주로 섬겨주실 집사님을 비롯해 모두 13명의 지체가 함께 출발했습니다.

출발에 앞서, 그동안 교정전도팀을 섬기시다가 장년 4교구 교구장으로 부임하시는 김하림 목사님과 새롭게 오신 이규희 목사님을 모시고 환송과 환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더운 날씨였지만 7명의 팀원은 뜨거운 갈비탕을 함께 나누며 그동안의 섬김에 감사를 전하고, 새로운 사역을 위한 격려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안양교도소에 도착하면 언제나 그렇듯 개인 소지품은 모두 사물함에 보관하고, 신분증을 제출해 본인 확인을

받은 뒤 검열대를 통과하여 교도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담당 교도관님의 안내를 받아 몇 개의 철문을 지나면, 150여 명의 형제들이 기다리는 예배 장소에 도착합니다.

앞줄에는 자매결연 모임에서 자주 만나던 낯익은 형제들이 앉아 있었고, 반가운 미소로 저희를 맞아주었습니다. 김하림 목사님의 인도로 형제들과 함께 두 곡의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목청껏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곳이 교회인지 교도소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규희 목사님께서서는 설교를 통해, 광야에서 끊임없이 모세를 힘들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마지막까지 ‘여수론’이라 부르며 축복한 모습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저주와 원망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선택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달라고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담 안의 형제들이 준비한 ‘광야를 지나며’ 특송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형제들의 찬양은 화려하지도, 세련되지도 않았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깊은 어둠 속에 두시는지, 왜 밤은 그토록 길게 느껴지는지, 왜 기댈 곳조차 없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와 같은 시간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빚어 가시는 시간이라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고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형제들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곡조 있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역을 마친 뒤 열린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교도소 집회에 함께한 예비 권사님 세 분과 반주로 섬겨주신 집사님께서 “사실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속으로 얼마나 떨었는지 모른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기존 팀원들은 “우리도 처음에는 모두 그랬어요”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낯설고 두렵게만 느껴졌던 교도소가, 어느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담 안의 형제’들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였음을 모두가 함께 공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곰곰이 생각

몸을 데려오는 이유,
교회에서 기도하는 이유

글·그림: 나동훈
gomgom2@designzip.co.kr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대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는 말씀은
고백과 관계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펼쳐드리는
고백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굳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몸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몸을 데려와야 마음이 머물고,
우리는 몸을 데려와야 지체됨이
재인(再認, Recognition)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주님!
마음을 빼앗긴 일상을 보내고 제 몸을 데려왔습니다.
하오니 제 몸이 있는 이곳에
제 마음이 돌아오게 하소서.

“내가...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사야 56장 7절)

8월 2주 **한여름밤의 특별공요기도회**

기도의 불을 다시 밝히는
은혜의 밤으로 초대합니다

일시 8월 7일(금)~28일(금)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장소 본관3층 예배실

강사

- 7일 권호 교수(합동신학대학원 설교학)
- 14일 유성택 목사(정운교회 담임목사)
- 21일 김영삼 목사(금광교회 담임목사)
- 28일 정진명 목사(주마음교회 담임목사)

2026 해외아웃리치 사역 일정

태국(NK)	7월 23일(목)~30일(목)
태국	7월 24일(금)~30일(목)
베트남	7월 25일(토)~31일(금)
라오스	7월 28일(화)~8월 3일(월)
미얀마(청년부)	7월 28일(화)~8월 4일(화)
캄보디아	7월 29일(수)~8월 5일(수)
캄보디아(청년부)	7월 31일(금)~8월 7일(금)

2040 수련회

주제 “WITH 2040”(요 15:7)
일정 8월 16일(주일)~17일(월)
장소 광림수도원
대상 부부 모두 또는 한 명이 1980년생 이하인 가정
※ 자녀를 위한 교회학교 캠프가 함께 진행됩니다

한 컷 말씀

사진: 김범무(장년4교구)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유치부에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엄마와 떨어져 예배를 드리게 된 날이 기억난다. 이제 나만의 예배가 시작되었음을 알았지만, 홀로 유치부실에 남겨진 것은 어린 나에게 큰 공포였다. 그러다 예배당 앞 중앙 벽에 걸린 나무 십자가의 예수님상을 바라보게 되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얼굴은 너무나 끔찍해서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았다. 찬양을 부를 때면 “죽정이는 밖으로”라는 가사에서 내가 죽정이 같아서 걱정되었고, “참사랑 우리 맘에 흘러 흘러 넘치길” 가사에서는 사랑도 잘 모르는 내게 참사랑은 너무 멀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 같은 아이는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그럼에도 교회가 싫지는 않았다. 친구들과 함께 하는 즐거운 시간들은 내 죄책감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와 같았다. 그러던 초등학교 2학년 말, 성탄절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교회로 나서는 나에게 아버지는 화를 내시며 앞으로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하셨다. 아버지가 싫어하시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친구들과 슬픈 이별을 하고 교회를 떠났다.

이후 입시 경쟁 속에서 점점 지쳐갔다.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모습을 보며 돈보다 평안한 삶을 갈망했다. 대학 진학은 내 인생 계획에 없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고, 대학에 쉽게 합격하게 되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첫 번째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이면에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마주하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 앞으로의 인생을 드리기로 결심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나를 막을 수 없었다. 영락교회와 JOY선교회에서 훈련받으며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그리고 평촌에서 시작된 신혼생활로 2008년 열린교회에 등록했다. 스물여덟 살에 시작한 장년 생활은 ‘생존기’와 같았다. 연배가 높은 분들과 구역모임을 하며 낯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인생의 괴로움이 몰려오던 시기, 열린교회 성도들이 설교를 반복해서 듣는다는 이야기를 떠올리며 나도 하기 시작했다. 일을 하고 아이를 돌보는 시간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시간에 설교를 들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선 그대에게’ 시리즈도 모두 들었지만, 여전히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죄 죽임의 교리’ 설교를 들으며 퇴근하던 길, 집 앞 신호등에서 회심을 경험했다. 나는 인생의 고통이 외부에서 온 것으로 생각하며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왔지만, 실상 문제의 중심에는 회복되지 못한 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순간 어린 시절 유치부실에 걸려 있던 십자가의 예수님은 더 선명하게 내 앞에서 피 흘리고 계셨다. 그날 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용서를 구하며 사랑하지 못했던 죄를 고백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의 평화가 내려왔고, 인생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감당할 만한 시험이 되었다.

그해 제직교육을 받고 구역장이 되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었고, 구역장을 내려놓게 되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마음은 조금씩 교회에서 멀어졌다. 설교 파일과 퓨리턴도서관, 열린카페만이 교회와 나를 이어주고 있었다. 1년이 지나자 나는 이 모든 피로함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결국 교회를 옮겼다. 다음날 교회에 화재가 일어나서 나는 곧 교회에서 잊히게 되었다. 옮긴 교회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다시 문제를 발견했다. 문득 열린교회가 떠올랐다. 내가 해야 했던 것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몇 달을 더 버티다 결국 돌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떠난 지 1년 만에 다시 열린교회로 돌아왔다. 말씀을 떠난 적은 없었지만, 그 시절엔 이상하게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 내 삶이 생물학적인 삶의 반복처럼 느껴졌다.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나는 절망하며 하나님을 떠날 것인지 아닌지를 고민했다. 어느 날 방문을 닫고 기도했다. 한 문장의 기도와 탄식만을 남긴 채 침묵 속에 기도를 마쳤다.

그런데 그 기도 이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회복을 허락하셨다. 나는 죄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민감해졌고, 무엇보다 교회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많이 울었다. 교회를 해친 적은 없지만, 사랑하지 않은 것은 적어도 내게는 죄였다. 화재 이후 복구된 교회를 바라보며 새롭게 된 교회와 함께 나도 다시 태어나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준비되어 있기 위해 경건생활과 모든 예배, 모든 교육에 힘썼다. 2017년 말 시작된 ‘실패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시리즈는 내게 마지막 치료제였다. 이후 새롭게 구역장 섬김을 제안받았고, 다시 실패할지도 모르는 두려움을 받아들이며 구역장으로 복귀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마지막 퍼즐을 끼워 넣는 순간이었다. 이후 7년 동안 구역장으로 섬기며 많은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다.

최근 교회는 전도회, 부부구역, 직장인예배 등 다양한 변화를 통해 더욱 활기차게 성장하고 있다. 내가 꿈꾸던 모습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며 감사하다. 그러던 중 남편이 인도 주재원을 제안받았다. 기도하기 위해 교회에 갔던 저녁에 담임목사님과 마주치게 되었다. 목사님은 신자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떠나고, 또 부르시면 다시 떠나는 것이라고 하셨다. 끌려가듯 가지 말고 기쁨으로 가라고, 이 교회에서의 훈련이 끝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으로 부르시는 것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놀라며 나는 순종하기로 했다. 인생에서 가장 안정적일 시기에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는 일은 쉽지 않지만,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놓지 않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이끄실 것을 확신한다. 열린교회에서의 모든 시간에 감사하며,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더 아름답게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한다. ☆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김성진
시무장로	김기현 박정갑 금성철 황철호 김대영 박기준 김용연 성경열 김춘경 이영춘 구용희 이동훈 박희준
은퇴장로	임두순 이대환 김희철 박찬동 김원희 김남근
부목사	이성도 최성기 류요한 명성인 심재운 정대환 김하림 이규희 최영광 조일권 오세광 김민성 최은광
협동목사	정창욱
강도사	이 찬
전도사	최선미 양승희 김미영 조희숙 곽혜정 김현희 김다영 김진하 이순이
교육전도사	최현성 박주광 원준식 광승훈 권세원 이해선 한하영

파송선교사

A국: 1 unit / B국: 1 unit
말레이시아: 양선우 & 전해림
에스와티니: 황아론 & 양진영 / 박현철 & 박상유
태국: 김요한 & 이진

예배시간 안내

	구분	시간
주일예배	1부	오전8시(본관 3층 예배실)
	2부	오전10시(본관 3층 예배실)
	3부	정오12시(본관 3층 예배실)
	4부	오후2시(본관 3층 예배실)
주중예배	수요예배	오후7시30분(본관 3층 예배실)
	목요직장인예배	정오12시(본관 3층 예배실)
기도회	새벽기도회	오전5시30분(본관 3층 예배실)
	금요기도회	오후8시(본관 3층 예배실)
	화요전도기도회	오전10시(본관 1층 예배실)
	수요섬김기도회	오전10시30분(본관 3층 예배실)
	토요강단기도회	오후4시(별관 2층 교육실)
	토요강단기도회	오후4시(별관 2층 교육실)
교회학교	청소년부	오전10시/정오12시(열린교육관 1층 교육실1)
	소년부	오전10시/정오12시(열린교육관 2층 교육실3)
	초등부	오전10시/정오12시(열린교육관 2층 교육실2)
	유년부	오전10시/정오12시(세빛교육관 4층 교육실3)
	유치부	오전10시/정오12시(세빛교육관 3층 교육실2)
	유아부	오전10시/정오12시(세빛교육관 2층 교육실1)
	영아부	오전10시/정오12시(별관 1층 영아부실)
	사랑부(취학부)	오전10시(별관 1층 사랑부실)
외국인	외국인팀	정오12시(세빛교육관 5층 외국인실)
	외국인팀	정오12시(세빛교육관 5층 외국인실)
백향목 공동체	봄·가을학기	금요일 오전10시30분(본관 1층 예배실)
금요	미취학부	오후8시(별관 1층 사랑부실)
데마학교	취학부	오후8시(별관 1층 영아부실)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4번출구)에서 버스 환승하거나 평촌역(3번출구)에서 20분 정도 걸어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길을 잃은 사람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며, 다시 돌아올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